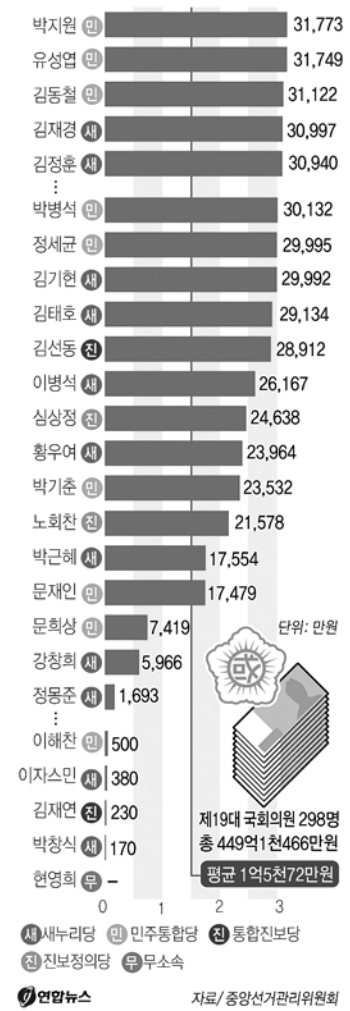


2012년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액 현황



19대 국회의원 후원금 449억...광주·전남 의원들 성적은?

박지원 3억1773만원 여야 통틀어 1위

‘輿論’ 현상 뚜렷...김동철·이용섭 3억원대

지역 기업인 고액 후원금·품앗이 기부 눈길

제19대 국회의원 298명이 지난해 후원회를 통해 모금한 후원금은 총 449억여원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가 14일 공개한 '2012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액' 현황에 따르면 국회의원 1인당 평균 후원금 모금액은 1억5072만원, 총 후원금 모금액은 449억1466만원이었다.

18대에 이어 재선에 성공한 국회의원들은 2012년 1~12월까지 한 해의 후원금 모금액이, 19대 국회에서 처음 국회의원 1인이 국회에 재입성한 의원들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후원회를 둔 이후 모금액이 각각 집계됐다. 국회의원들이 작년에 모금한 후원

금은 2011년도 모금액 310억3900만원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국회의원 연간 모금한도액이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등 전국 선거가 있는 해에는 2배인 3억원으로 상향조정되기 때문이다. 작년에는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동시에 치러졌다.

지난해에는 집권 여당 및 원내 과반 의석을 확보한 새누리당에 후원금이 쏠렸다. 새누리당 153명 의원이 지난해 거둬들인 후원금은 총 249억9158만원으로, 전체 후원금의 55.6%를 차지했다. 새누리당 의원 1인당 평균 모금액도 1억6334만원에 달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 126명의 후원금 모금액은 183억958만원이었고 1

인당 평균도 1억4595만원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새누리당에 ‘솔림현상’이 생긴 것은 4·11총선에서 승리한 데 이어 연말 대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광주·전남의원 성적표=박지원 의원이 3억1773만원을 모아 전체 의원 중 1위, 김동철 의원이 3억1123만원을 모아 3위를 각각 차지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또 이용섭 의원이 3억892만원으로 전체 6위를 차지했다.

반면, 통합진보당 오병운 의원은 4647만원을 모아 광주·전남지역 의원 중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배기운 의원이 5347만원, 황주홍 의원이 6982만 9158만원으로, 전체 후원금의 55.6%를 차지했다. 새누리당 의원 1인당 평균 모금액도 1억6334만원에 달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 126명의 후원금 모금액은 183억958만원이었고 1인당 평균도 1억4595만원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에게 각 500만원, 박지영 모아 주택산업 회장은 박해자·장병완·김동철·이용섭 의원에게 각 500만원의 기부했다. 또 목포 근화건설 김호남 대표는 김동철·박지원·이윤석 의원에게 각 500만원, 영흥섭(주)서산 회장은 장병완·이용섭 의원에게 각 500만원을 후원했다. 김성근 의원은 홍석조 보광해미리마트 회장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았다.

◇품앗이 기부도=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같은 당의 김재철 의원으로부터 500만원, 김승남 의원은 지역구를 물려받은 박상현 전 의원으로부터 500만원을 기부받아 눈길을 끌었다. 이정현 청와대 정부수석은 서상기 이학재 김태원 의원에게 각각 100만원, 500만원, 500만원의 후원금을 냈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과 민주당 김진표·김준진·김영복 의원은 직속 보좌진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기도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대통령·문재인 1억7500만원

정몽준 1693만원·이해찬 500만원 최하위권

18대 대선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과 민주통합당 문재인 의원은 지난해 1억7500만원의 후원금을 각각 모금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4일 공개한 '2012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선 직전 비례대표 의원을 사퇴한 박 대통령은 총 1억7554만원을 모금했다.

문 의원은 고액후원자 14명을 포함해 총 1억7479만원을 모금, 박 대통령과 거의 비슷한 금액을 신고했다.

양당 지도부 중에서는 박지원 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3억1773만원으로 전체 여야 의원을 통틀어 1위를 차지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2억3964만원)와 김기현 원내수석 부대표(2억9992만원),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2억3532만원)도 비교적 많은 후원금을 신고했다.

국회부의장인 민주당 박병석(3억132만원), 새누리당 이병석(2억6167만원) 의원의 신고액수도 많은 편이었다.

반면 재력가로 유명한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은 1693만원으로 하위권에 머물렀고, 민주당 문희상 비대위원장(7419만원), 강창희 국회의장(5966만원)의 후원금도 모금도 저조했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는 500만원의 후원금을 모으는데 그쳤다.

통합진보당에서는 김성동 의원이 2억8912만원으로, 같은 당 소속 동료 의원 5명의 합계(1억3073만원)의 갑절이 넘는 액수를 신고해 눈길을 끌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안철수 '힘겨루기'

민주, "노원병 후보 단일화는 필수" 압박

안측, "비판이 좀 과도하다" 신경전 고조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와 민주통합당과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4·24 재보선 노원병 선거구의 후보 단일화를 내세워 안 전 교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안 전 교수 측도 적극 반격에 나서는데 힘겨루기가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14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 "정치도의적으로도 안 전 교수를 적대시해서 안된다"면서도 "안 전 교수가 부산에 출마, 지역 구도 타파에 앞장섰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안 전 교수의 노원병 출마에 대한 야권의 공격과 관련, 안 전 후보 측의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라디오 방송에 나와 "비판이 조금 과도하다"며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다.

안 전 교수가 부산 영도에 출마해야 한다는 여야의 주장에 대해서는 "새로운 세력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느낀 기존 정치권의 적대적 공존"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차려놓은

밥상도 못 챙겨먹은 채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모두 진 것도 연합하면 이긴다는 신화 때문 아니었느냐"며 "쇄신이 부족했다. 연합도 필요하지만 쇄신 경쟁이 좀 일어나야 앞으로 총·대선이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측의 신경전은 안 전 교수측이 대선 당시 선거지원 조건으로 안 전 교수를 미래 대통령이라고 밝힌 것을 요구했다는 민주당 문재인 전 후보 측 주장을 둘러싼 '진실게임'과 맞물려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는 지난 13일 지난해 대선 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지원 조건으로 '미래 대통령' 발언을 요청했다는 문 전 후보 측 인사를 주장에 "실의도 없는 요구를 하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있겠냐"라고 정면 부인했다.

정치권에서는 4·24 보궐선거전이 본격화되면 아권연대 등을 놓고 민주당 등 야권과 안철수 전 교수 진영간의 힘겨루기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문화신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박기춘 원내대표가 14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임하며 박지원 전 원내대표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말뉴스

민주 초선의원 33명 "당 혁신 적합한 새 인물 뽑겠다"

민주통합당 초선의원 33명은 14일 "당을 새롭게 이끌 혁신적 리더십을 세우는 데 힘을 모으겠다"며 5·4 전 당대회에서 특정후보 지지를 위한 공동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마저 친노(친노무현)-비노(김대중, 노무현) 경계, 계파 간 갈등, 선거 책임

논쟁으로 시간을 빼앗겨선 안 된다"며 "당의 변화를 가장 잘 통찰할 새 인물을 직접 출마시키거나 후보 가운데 가장 적합한 인물을 택해 실질적 공동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계파 간 소모적인 갈등과 담합 구조가 그동안 민주당의 역동성을 가로막아 왔다"며 "배타적 비노 결정 등의 폐해를 낳는 당내

계파 정치는 청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김기식 의원은 기자회견 후 "아직 특정인물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 넓은 계파질서를 해체하고 제대로 혁신할 사람을 뽑겠다는 것"이라며 "(지지대상이) 초재선 사이에서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초선 황주홍, 최고위원 출마 시사

민주당 비주류·초재선 의원 지지 여부 관심

민주통합당 5·4 전당대회를 앞두고 황주홍 의원(장흥·강진·영암)이 최고위원도전을 시사해 주목받고 있다.



황 의원은 14일 초선일기를 통해 "내가 최고위원에 출마한다면 당 혁신과 정치 쇄신을 크게 부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음 대선에서 민주당이 이겨보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시급히 중도개혁주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더 크게 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앞으로 며칠 더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 정말 생각지도 않았는데, 느닷없이 최고위원 출마를 검토하게 됐다"며 고민스러운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황 의원은 초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당 지도부를 향해 과감하고 꾸준하게 쓴 소리를 던져와 당 내외에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따라 황 의원이 최고위원도전에 나선다면 당내 비주류 진영은 물론 혁신을 바라는 초재선, 중도 의원들을 중심으로 상당한 지지를 얻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민주당 국회의원 가운데 최고위원 주자가 없다는 점에서 호남 정치권의 지지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당내 핵심 관계자는 "황 의원은 비주류이자 초선으로서 당내 조직이 탄탄하지 않다는 점이 핸디캡"이라며 "하지만 혁신을 토대로 한 도전 정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그의 출마는 상당한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명숙 前총리 무죄 확정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진 한명숙(69) 전 국무총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4일 광영옥 전 대통령을 사장으로부터 미화 5만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부동산, 팔리지 않아 고민하십니까?
사고 싶는데 마땅한 매물이 없으십니까?

고객님의 고민을 솔로몬 공인중개사가 속시원하게 풀어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주변토지 급구!
(매수자 대기) **2억~10억**

나주혁신도시 · 남평강변도시 전문 솔로몬 공인중개사
061)333-7077 · 010-5587-3080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

대인동삼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점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 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시장남개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FAX)223-1772 | 전화 011-602-2532
(광주은행 신촌점,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금매매

양산동
6차선 도로변
3층 건물(영업중)
1층, 2층 식당
3층(가정집)
대형 주차장 완비

토지366평
건물207평

현 토지가격 **450만원 정도**
15억
대형식당
교회,부페(가능)
개인사정으로 금매매 (월세도가능)

010-3701-4767

대한공인중개사 사무소

◆상가건물◆

- 오치동 대지 330㎡ 건물 793㎡ 월수익 380만원 (추가임대수익) 매대가 7억9천만원 196천원, 용지 196천원

◆상가매매◆

- 신용동 철민2지구 110㎡ 월수익400만원 매대가 8억원 (보증금 5천만 원) 용지4억 원 이동통신점 임점예정
- 신용동 철민2지구 66㎡ 호반주출입구 앞 아파트 주출입구위치 대로변 코너건물 핵심상권 매4억원

분양

- 용두동 철민2지구 1100여세대대부상권 주출입구 앞 1층 48㎡ (단지독점형상권) m5544만원 매대가 2억6천만원
- 용두동 철민2지구 1100여세대대부상권 주출입구 앞 2층 47㎡ (단지독점형상권) m당 163만원(7천7백만원) -2구 좌분양가능

상가임대

- 신용동철민2지구 호반주출입구앞 132㎡ 3층 보증금3000 / 월140만원/ 피아노학원, 미술학원, 보습학원, 영수학원등 학원밀집지역(매상구역)
- 신용동철민2지구 호반주출입구앞 132㎡ 4층 보증금3000 / 월120만원(대건도학원, 미술학원, 보습학원, 영수학원등 학원밀집지역 매상구역)

상가주택매매

- 신정동 하남2지구 1층점포2칸, 2층 투스리홀37개 3층복층인실 월수익550만 87933천원
- 월전동 흥16개 1층점포, 월수익650만 8695천원

대한공인중개사 사무소
010-8611-9009
(건국·분당·대행·시흥·신당)

경매비법

- ▶배우면서 투자가능
- ▶실제 낙찰사례 스테디
- ▶1인1물건 추천
- ▶주1회, 3개월 완성
- ▶수강료 550만원

(주)오천정매 H.010-3605-5000

못 받은 돈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공증문서
- 대여금
- 법원판결문
- 운송료
- 각종채권
- 구상금
- 물품대금
- 공사대금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채무자 신용조사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선수금없음
(회수금에 대한 환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액"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환보고"

세일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